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4



Contents



※ 2026.08.19.(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8.12.~2026.08.18.)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2026.08.13) 1
 - 충남, 탄소중립 앞세워 공공기관 15곳 유치전(2026.08.13) 1
 - 경남도·창원·진주·김해, 탄소중립 우수사례 수상(2026.08.12) 2
 - 경기, 주민 참여 '우리동네 순환거점' 19곳 확산(2026.08.17) 2
 - 김해 시민 1,441세대, 탄소중립 인센티브 기부(2026.08.18) 3
 - 장수군, 국산 목재 활용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8) 3
- AI 분야 4
 - 정부, SMR·핵융합 공식화...AI 전력망 구축 속도(2026.08.12) 4
 - 원주,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예타 사업 시동(2026.08.12) 5
 - 부산시, AI·SW 인재 매년 150여명 육성 거점 개소(2026.08.12) 5
 - 용인시, AI로 도로 파임 자동 감지 체계 구축(2026.08.16)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동서발전 음성본부, 미래세대 탄소중립 교실 개최(2026.08.17) 7

- 경기교육청, 학교 탄소중립 교육 대전환 협약(2026.08.12) 7
- 적십자사 경기지사, 청소년 탄소중립 캠프 발대(2026.08.12) 8
- 대전서구가족센터, 한 끼 식단으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3) 8

- AI 분야 9

- 삼성중공업-KAIST, 차세대 선박연구센터 출범(2026.08.13) 9
- 로봇·AI 국제학술대회 IFAC, 18년 만에 부산 개최(2026.08.18)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동국대 경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2026.08.13) 11

- AI 분야 11

- 카카오, 비수도권 청소년 'AI 루키 캠프' 2기 수료(2026.08.18) 11
- 앤스로픽·오픈AI 등 글로벌 AI 기업 상장 경쟁(2026.08.12) 12
- 애플, 알리바바 협력 중국 시장 전용 AI 개발(2026.08.16) 12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2026.08.13)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년 만에 후속 입법을 의결 - 개정안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5년 단위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감축률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정하고 각 구간의 최저 감축률은 선형 감축경로를 토대로 설정하되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 규제는 범위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설계 - 2024년 8월 현재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현행법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상용화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 중장기 감축목표의 원활한 이행 뒷받침을 기대
지자체	☐ 충남, 탄소중립 앞세워 공공기관 15곳 유치전(2026.08.13) - 석탄화력발전소 21기의 추가 폐지를 앞둔 충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기후환경 분야 10곳과 에너지 전환 분야 5곳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 15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히며, 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 - 유치 대상은 도가 목표로 세운 50곳의 30%에 해당하며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하고, 기술개발과 평가·실증·인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보급 기능 기관을 묶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는 지원체계 구축을 구상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수출 제조업이 밀집한 충남에서는 탄소 규제가 곧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관련 기관 집적을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이고 저탄소 공정과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등 발전산업 위축 대응을 넘어선 지역 산업 전환 효과를 기대
	□ 경남도 · 창원 · 진주 · 김해, 탄소중립 우수사례 수상(2026.08.12) - 창원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탄소중립 이행성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고,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진주시와 김해시는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남도와 창원 · 진주 · 김해 3개 시의 동반 수상 성과를 확보 - 창원시는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프로그램 '감축시민 탄소제로 도전기'와 누리소통망 캠페인 운영 성과를, 경남도는 민관거버넌스 '경제기후대책본부(TF)' 구성과 17개 기관 · 단체 업무협약, 중소기업 16개소 · 노후 공동주택 50개 단지 에너지 진단 · 시설개선 지원, 전국 최초 주유소 일회용 비닐장갑 미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 - 진주시는 어린이 ·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와 통합교통서비스 '마스(MaaS)', 하모콜버스, 공공건축물 40% 목조건축 조성 등을, 김해시는 '기후지킴이 포인트'와 '탄소중립 고백 대잔치', 상하수도 요금 알림톡 등을 인정받았으며, 이재철 도 환경산업국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지속 확대 방침을 표명
	□ 경기, 주민 참여 '우리동네 순환거점' 19곳 확산(2026.08.17) - 경기도가 투명 페트병과 우유팩, 커피 찌꺼기를 모으면 포인트로 돌려받는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공간 '우리동네 순환거점'을 도내 19곳에 마련해 운영하며, 분리수거함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기반의 확산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주민들이 집에서 모아 온 우유팩과 투명 페트병의 무게를 잰 뒤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종량제 봉투로 바꿔 가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에 알록달록 색을 입혀 친환경 소품을 만드는 활동과 자원순환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공유옷장과 물품 공유함 등 마을 특성에 맞춘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 - 경기도는 주민들의 참여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마을 활성화 사업과 거점 조성, 거점 연속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거점이 탄소중립 실천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거창한 정책보다 주민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의 정착을 기대
	□ 김해 시민 1,441세대, 탄소중립 인센티브 기부(2026.08.18) - 김해시가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기부자 1,441세대가 적립한 인센티브 1,667만원을 김해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히며, 기탁금은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돼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과 나눔의 동시 실천을 확인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김해지역에서 5만1,877세대가 참여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체 참여 세대 가운데 1만7,683세대가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줄여 시가 현금과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방식으로 총 2억70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 김해시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기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지난해 상반기까지 10차례에 걸쳐 1만5,586세대가 총 1억7,778만원을 기부했으며, 시는 찾아가는 가입 창구와 신규 가입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누리집 가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기후대응과 신청 접수를 안내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
	□ 장수군, 국산 목재 활용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8) - 장수군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산 목재 활용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히며,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건축물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가구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해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고 플라스틱과 철근·콘크리트 등 고탄소 재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자원 활용 정책을 추진 - 군은 숲가꾸기와 벌채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해마다 취약계층의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하고 공공건축물과 산림휴양시설 신축·정비 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설계를 검토하며, 방화동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자연 소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전개 -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와 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 펠릿과 칩으로 가공해 난방·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홍보 중이며, 지난 6월 19일 산림조합 등과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국산 목재 우선 사용 반영과 친환경 목재 이용문화 확산을 도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정부, SMR·핵융합 공식화...AI 전력망 구축 속도(2026.08.1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을 국가 미래 생존을 위한 핵심 첨단기술로 공식화하며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추진 - 정부가 꼽은 7대 첨단산업은 SMR과 핵융합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이며,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을 발표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방안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구성 - 보고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대학·연구소·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산업 육성 방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며, 청와대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확보를 도모
지자체	□ 원주,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예타 사업 시동(2026.08.12) - 원주시가 핵심 거점으로 추진하는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이 오는 13일 서울 착수보고회로 본격 출발하며, 송기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자열 원주시장,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 공유와 국가 예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웰니스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사전검증을 거쳐 2028년 본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며, 시는 의료AI 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도시 안에서 이뤄지는 '도시 안의 도시' 개념의 의료AI 산업모델 구현을 계획 - 병원과 의료·돌봄 현장, 시민 생활공간을 실증무대로 활용하고 30여년간 축적한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실증과 인허가, 사업화를 잇는 '의료 AX 산업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며, 원주를 대표 의료AI 실증도시로 육성하고 성과를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는 성장모델 창출을 전망 □ 부산시, AI·SW 인재 매년 150여명 육성 거점 개소(2026.08.12) - 부산시가 12일 지역 디지털 산업 혁신을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 거점 'AI·SW 마에스트로 부산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며, 서울에 이어 전국 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번째로 문을 연 센터를 통해 고급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키워 기업 유치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매년 150여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 - 센터는 AI·SW 분야 우수 인재를 선발해 프로젝트 중심의 심화 교육과 기업 연계형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계 전문가와 기술 멘토가 교육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장형 멘토링을 핵심으로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의 취업·창업 연계를 지원하며, 고성능 AI 연산 장비와 실증 장비 등 교육·개발 인프라도 구축 -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지역 AI·IT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과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과 함께 지역 배출 고급 인재를 기반으로 수도권 기업의 부산 이전을 유도하는 지역 디지털 산업 성장 거점화를 전망
지자체	□ 용인시, AI로 도로 파임 자동 감지 체계 구축(2026.08.16) - 경기 용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용차 등 차량 300대에 충격 감지 센서와 도로 촬영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 도로 파임(포트홀)을 실시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며, 블랙박스 영상 제출이나 사진 촬영이 필요했던 기존 신고 방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발견부터 보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도로 관리 혁신을 추진 - AI가 도로 파임을 자동으로 찾아내 보수까지 마친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3천2백여 건이며, 기존 1~2주 걸리던 정비 시간을 3일에서 5일 정도로 크게 줄이고 처리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도로 상태 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따로 운영했던 국민신문고와 'AI 포트홀 관제시스템'의 통합도 완료 - 용인시가 시스템 도입 전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도로 파임 민원이 백여 건 감소했으며,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파임을 조기에 발견해 처리함으로써 각종 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의 이른 시간 내 해소로 이어지는 AI 기반 도로 안전 관리 성과의 확산을 기대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동서발전 음성본부, 미래세대 탄소중립 교실 개최(2026.08.17) - 한국동서발전(주) 음성발전본부(본부장 김동현)가 여름방학을 맞아 음성발전본부 행정동에서 임직원 자녀인 유아·초등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미래세대 탄소중립 교실'을 열었다고 17일 밝히며,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으로 나눠 운영하는 미래세대 대상의 눈높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전개 - 이론교육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천연가스발전소의 역할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탄소중립의 개념 등을 최근 계속된 폭염 사례와 접목해 진행하고, 체험학습은 '일상 속 친환경 체험'을 주제로 친환경 파프리카 비누 만들기과 스칸디아모스 초록나무 액자 만들기 순으로 구성 - 참가 어린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친환경 생활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으며, 김동현 본부장의 음성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지 표명과 함께 본부는 교육 대상을 음성지역 아동·청소년까지 넓혀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형 환경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제시
지방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 탄소중립 교육 대전환 협약(2026.08.12)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과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탄소중립 계획·실천 공동 추진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교육 강화 협력을 추진 - 주요 협력 사항은 학교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평가 체계 구축·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교육 활성화, 학교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진, 학교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과 실천 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이며, 도민 행동 측은 도민 사회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실천 문화 확산에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 - 도교육청은 학교 탄소중립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서 이행·평가까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에너지 교육으로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안민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학교 탄소중립 교육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의 경기교육 전반 확산 의지를 표명
	□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청소년 탄소중립 캠프 발대(2026.08.12)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12일 광명푸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2026 청소년 탄소중립 인도주의 캠프'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실천 행보에 돌입하며, 청소년들이 환경 재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사회 내 주도적인 생태 리더로 거듭나도록 돕는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미래세대의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유도를 추진 - 이번 캠프는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과 직결된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획됐으며, 광명 지역 청소년 40명이 참가해 2박 3일 일정 동안 적십자 인도주의 인성교육을 수료하고 자원회수시설 등 광명·시흥·안산 지역의 탄소중립 시설을 견학하며 다각도의 탄소중립 활동을 펼치는 일정으로 구성 - 발대식에는 김봉국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과 이광수 광명시지부 회장, 박성숙 광명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미현 광명시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타격을 주는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인식 아래 참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 실천으로 환경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기대
	□ 대전서구가족센터, 한 끼 식단으로 탄소중립 실천(2026.08.13) - 대전서구가족센터가 2026년 지역특화사업으로 탄소중립을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프로그램 '한 끼의 연습'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과 요리 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습을 진행하고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거창한 구호보다 밥 한 끼에서 출발하는 실천 중심의 생활 속 탄소중립 교육을 전개 - 제철 식재료 활용법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 자체 같은 습관까지 연습하도록 참여자에게 개인 용기와 장바구니 지참을 안내하며, 4월 '봄, 한 끼의 연습'과 5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같이 먹는 날의 한 끼', 7월 파프리카와 버섯 등 식물성 재료로 비건 초밥을 만든 '여름, 시원한 한 끼'를 진행 - 하반기에는 9월 '가을, 같이 만드는 한 끼'와 10월 맞벌이·1인 가구를 위한 '여유 없는 날의 한 끼', 11월 김장을 주제로 한 '겨울의 요리', 12월 노년기 대상 씹기·소화 부담을 줄인 '부담을 덜어낸 한 끼'가 예정돼 있으며, 한 끼를 바꾸는 작은 연습이 식탁의 습관을 바꾸고 일상의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실천 확산을 도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삼성중공업-KAIST, 차세대 선박연구센터 출범(2026.08.13) - 삼성중공업이 13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차세대 선박연구센터 개소식을 열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인공지능(AI)·로보틱스·친환경 등 미래 조선해양 기술 확보에 나서며,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배충식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트렌드 분야 공동 연구 추진을 발표 - 주요 연구 분야는 자율운항·지능항해 AI 기술, 무탄소·저탄소 연료 추진 시스템, 스마트 조선소 디지털트윈 제조 혁신, 조선해양 특화 로보틱스 등이며, 개별 연구 과제별로 진행한 기존 협력 방식을 넘어 상시적으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산학협력기금 등을 통한 학생 연구 지원과 장학사업도 병행하는 체계로 구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양측의 산학협력은 1995년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와 KAIST 기계공학과와의 산학협력 협의회 구성으로 시작돼 자문교수제를 통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기술 자문이 1000건을 넘어섰으며,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과 미래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점 성장,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가속화를 기대
기타	□ 로봇·AI 국제학술대회 IFAC, 18년 만에 부산 개최(2026.08.18) - 부산시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옛새간 벡스코에서 국제자동제어연맹(IFAC)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관하는 '제23차 IFAC 세계대회'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히며, 1957년 창설 이후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자동제어 분야 국제학술대회의 2008년 서울 대회 이후 18년 만의 국내 개최를 발표 - 이번 대회에는 75개국 이상에서 4400여명이 참가 등록하고 해외 연구자와 산업 전문가 3600여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며, 벡스코 내 37개 회의실에서 9개 주제와 39개 기술 분과를 중심으로 전체 회의와 워크숍, 논문 발표, 전시회를 진행하고 로보레이서 그랑프리, 미니드론, 웨어러블 로봇 챌린지 등 경연대회도 마련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 - 22일 부산 지역 중학생 30명 대상 'AI 로봇팔과 함께하는 체험 워크숍'과 26일 초·중학생 60여명 대상 'IFAC Young Robot Explorers' 등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24일에는 UC 버클리대학교 로봇공학자 켄 골드버그 교수가 연사로 나서는 시민 무료 특별 강연 '미래를 여는 AI와 로봇'을 여는 등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동국대 경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2026.08.13)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난 12일 외동읍 영지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제2회 '찾아가는 탄소중립 ON 연극'을 개최하고, 입실·도담·월성·외동·청운어린이집 등 외동읍 소재 5개 어린이집 원아와 인솔교사, 영지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등 126명이 참여한 환경 연극 공연을 전개 - 공연은 체험형 환경 연극 '공룡 구출大作전'으로 진행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익히도록 구성됐으며, 외동읍 어린이집 5곳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공연으로 확대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환경문제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 박성범 경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은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센터는 앞으로 경주시 소재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공연을 추가 운영하고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대의 환경 인식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카카오, 비수도권 청소년 'AI 루키 캠프' 2기 수료(2026.08.18) - 카카오가 비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루키 캠프' 2기를 마치고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강원·경상·전라·제주·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2회에 걸쳐 각각 3박 4일간 참여한 캠프 운영을 완료 - 2기는 1기 운영 경험과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사전학습을 새롭게 도입하고 퍼지컬 AI 기초와 바이브 코딩 등을 미리 학습하도록 했으며, 각종 센서와 디스플레이 모듈, 레이저 커팅기, 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개발 보드 등 실습 장비를 확충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으로 구현되는 환경을 구축 - 학생들은 문제 발견·정의부터 아이디어 설계, 핵심 기능 구현, 결과물 완성, 사용자 관점의 검증, 발표까지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을 경험했으며, 대상은 'AI 스마트 교통약자석'을 선보인 위시트(WE:SEAT) 팀이 수상하고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중 3기 참가자를 모집해 2027년 상반기에 캠프를 진행할 예정으로 확인
해외	□ 앤스로픽·오픈AI 등 글로벌 AI 기업 상장 경쟁(2026.08.12) -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을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 AI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 준비에 나서며, 미국에서는 오픈AI와 앤스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IPO 서류를 제출하고 중국에서는 딥시크와 문샷AI가 각각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등 생성형 AI 경쟁의 증시 경쟁 전환을 전망 - 상장 절차가 가장 빠른 앤스로픽은 지난 6월 1일 SEC에 IPO 등록 서류를 비공개 제출했고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6월 8일 비공개 서류를 제출했으며, 오픈AI는 최대 1조달러(약 140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지만 주식 시장 불안과 기업가치 손실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장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을 확인 -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최근 기준 앤스로픽이 9650억달러로 오픈AI(8520억달러)를 앞서고 있으며, 모닝스타는 앤스로픽이 먼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생성형 AI 경쟁이 기술과 투자 유치 단계를 넘어 미국과 중국 대표 AI 기업 간 본격적인 증시 경쟁으로 옮겨붙는 국면 전환을 시사 □ 애플, 알리바바 협력 중국 시장 전용 AI 개발(2026.08.16) - 애플이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시장 전용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최적화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수개월 내 중국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체 AI 모델과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중국에서는 독자 개발한 전용 모델에 알리바바의 쿼원과 바이두 검색을 결합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달 애플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등록해 애플은 중국 정부의 생성형 AI 상용화 승인을 받은 첫 외국 기업이 될 전망이며, 구글 서비스가 차단된 중국에서는 제미니 기반 시리 AI를 사용할 수 없고 현지 당국 승인을 받은 AI 모델만 활용해야 하는 규제 환경상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사실상 필수라는 배경을 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과 동맹국에 미국이나 중국이나를 요구하고 미국의 AI 디커플링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서로 다른 AI 전략을 적용하는 애플의 이원화 구상이 미국 안보정책과 충돌하며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 유지와 미국 규제 대응 사이의 긴장을 시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